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李대통령 27~30일 중국 방문 양국 관계 격상 모색

이명박 대통령이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지난달 미국과 일본 순방에 이어 두번째 해외 길이다.

이 대통령은 중국 방문 당일인 27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관계증진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기존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렇게 되면 양국은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한반도를 포함한 한·중·일 3국간 협력 확대,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세계적 이슈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에 뜻을 같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비핵·개방·

3000' 구상 등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은 또 교역과 투자 확대는 물론 금융, 이동통신, 에너지, 과학기술, 환경분야 협력을 위한 대화도 갖는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는 초기 단계의 논의를 개시하면서 향후 추진 방안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량과파구기(WMD) 비확산, 국제테러리즘 및 금융경제 범죄, 기후변화, 청소년 교류 확대 등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연내에 추가로 상호 교환방문을 하는 문제를 놓고 진지한 협의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쓰촨성 대지진 사태에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 자칭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등 중국 정계의 실력자들과 있던 회동을 통해 양국간 우호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과 칭다오 등을 찾는 이번 중국방문에서 예의 경제행보에도 주력한다. 베이징 생명과학연구소 시찰, 수행 경제인과의 조찬 간담회, 한·중 이동통신서비스 개발 센터 시찰, 한·중 경제인 주최 오찬 연설회, 현지 진출 기업 대표와의 간담회, 한·중 합작공장인 베이징 현대자동차 시찰, 산동성 진출 기업인 초청 리셉션, 중국기업인 하이얼 시찰, 한국기업인 영원무역 시찰 및 직원과의 오찬 등 전체 일정의 절반 정도가 이에 배정됐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베이징대 연설 등을 통해 중국과의 거리를 좁혀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힐러리, '오바마 암살' 시사 발언 파문

"케네디 암살 기억..." 오바마 캠프 발끈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23일 (현지 시각) 자신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완주 의지를 언급하면서 지난 1968년 경선에 나섰다 암살당한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을 언급, 경쟁자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측의 큰 반발을 샀다.

이날 힐러리는 내달 3일 마지막 민주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열리는 사우스 카로라이나주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 남편도 지난 1992년 6월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머리에서 이길 때까지 경선을 중단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지난 1968년 경선에 나섰던) 로버트 케네디 전 상원의원도 6월 캘리포니아에서 암살당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힐러리는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 6월까지 당내 경선이 계속된 사례

로 두 가지를 언급했던 것. 힐러리는 이어 자신에 대한 경선 포기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경선완주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힐러리의 발언이 알려지자 오바마 진영이 발끈하고 나섰다. 로버트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암살에 대한 힐러리의 언급이 마치 힐러리가 오바마의 암살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겼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 오바마는 일찍부터 암살 가능성에 대한 위협을 느껴 다른 후보들보다도 훨씬 빠른 작년 여름부터 백악관 경호실의 경호를 받아왔다. 오바마 진영의 빌버턴 대변인은 "힐러리 상원의원의 발언은 유감"이라며 "선거과정에서 설 곳이 없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4일 중국 쓰촨성을 강타한 대지진의 진앙지인 원촨현 임수진을 찾아 원자바오 총리와 악수를 하며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潘총장 영향력 확대

미안마 군정 빗장 풀고 중 지진현장 전격방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미얀마 사이클론 사태와 중국 쓰촨성 대지진 등 세계적인 재난·재해 지역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반 총장은 22일 미얀마에 도착해 사이클론 나르기스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재난 지역을 직접 둘러보며 다음 날 미얀마 군정 최고지도자인 탄 슈웨 장군과 담판을 통해 재난구호를 위한 해외인력에게 빗장을 푼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반 총장이 직접 나서 공식 사망자만 7만명을 넘어선 대재난에도 불구하고 체제 유지에 위해 은둔을 고집했던 미얀마로부터 이같은 약속을 받아낸 것에 대해 외교적 역량이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음날 반 총장은 공식 사망자가 6만명을 넘어선 중국 쓰촨성 원촨현 임수진을 전격 방문했다.

그는 원자바오 총리와 악수를 나누며 애도를 뜻하는 한편 유엔이 추가적인 지원계획을 논의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폐허가 된 마을 곳곳을 1시간여 동안 둘러보고 이재민들의 손을 부여잡고 희망을 잃지 말라며 용기를 북돋우기도 했다.

이처럼 국제기구의 최고 수장으로서는 위험이 채 가라앉지 않은 재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한 것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재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에 충분했다.

이같은 행보는 국제무대에서 반 총장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유엔이 재난·재해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유엔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연합뉴스

'일본인 납치' 전향적 조치?

27~29일 힐-김계관 베이징서 회동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오는 27~29일 중국 방문 기간에 북한 측 파트너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나 핵 신고 협의의 마무리를 확인하는 동시에 일본인 납치 문제 등 북일 간 현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은 미국 정부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는 조치를 의회에 통보하는 것을 계기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한 '모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 현안에 정통한 북수의 정부 소식통은 25일 "베이징 북미 회동의 주제는 북·일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면서 "특히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힐 차관보는 최근 워싱턴에서 진행한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일본 측이 제기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함한 '관심과 우려사항'을 김계관 부상에게 전달하고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일본은 국내 정치적인 차원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전체적인 6자회담 진전에 심각한 저해요소로 떠오르기 전에 일본과 북한간의 진전도 도모해 주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해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일종의 패키지 안에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함한 것은 조치 부시 미 대통령이 우방인 일본을 배려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 행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교역금의 책쇄도 풀어줘야 하는 만큼, 미 의회가 크게 반발하지 않도록 '일본인 납치문제'에서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전달했으며, 북한 측도 공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은 이번 베이징 회동이나 회동이 끝난 이후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모종의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와대 커피숍

100평규모 문 열어 방문객 편의 제공

청와대는 방문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북악 안내실'을 대폭 확충하기로 하고, 면회실 등 이전에 심각한 저해요소로 떠오르기 전에 일본과 북한간의 진전도 도모해 주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감안, 안내실을 1층 120평, 2층 100평으로 신축해 1층에는 원탁 테이블과 의자 등을 비치, 20~30명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화장실도 남·여성용, 장애인용으로 나눠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2층에는 커피숍과 청와대 시계 등을 파는 기념품점을 두고 면회실로 활용하기로 했다. 커피숍은 스타벅스 등 외국 브랜드는 배제하고 국내 브랜드를 입점시킬 계획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연합뉴스

중지진 사망자 6만명 넘어서

실종자는 2만6천명

중국 쓰촨성 대지진의 사망자가 발생 12일째인 24일 6만명을 넘어섰다. 중국 국무원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날 오후 현재 6만560명, 실종자는 2만6천221명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루 전날 오후 현재 공식적인 사망자와 실종자는 각각 5만5천740명

과 2만4천960명이었다. 앞서 원자바오 총리는 이날 진앙지인 원촨현 임수진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직접 "대지진 사망자가 6만명을 넘었으며, 앞으로 8만명이나 그 이상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그러나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인민들은 힘을 합쳐 복구와 재건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3개월 내에 이 지역 인

민들의 생활을 정상화하고 3년 내에 산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방역문제에 언급, "아직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방역 인력과 소독약 등도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그러나 베이징현 탕자산에 생긴 자연호수인 연쇄호 등으로 우려되는 2차피해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실종 80세 할아버지

266시간만에 구출

래 깔려 있었으나 아내로부터 물과 음식을 공급받아왔다고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사가 전했다.

중국 쓰촨성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지 266시간만인 지난 23일 현장에서 생존자 한명이 무사히 구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현지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지진 피해가 컸던 멘양주에서 구출된 이 사람은 80세의 노인(남)으로, 지진으로 집이 무너진 뒤 돌기둥 아

www.anyche.com

www.anyche.com

새로운 국가자격증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취득 교육생 모집 약한 40명

교육과정	자격증 1반 (간호사, 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자격증 2반 (사회복지사, 상급자격 / 교역자반)
선급 졸업반	0900~1000월~교	선급 졸업자반
선급 수강반	0900~1300월~교	사제정 반
선급 수강반	1400~1800월~교	주강반(보.보)
선급 수강반	1830~2230월~교	과제반

6개월 이수 후 시험없이 1급 국가자격증 교부

교육보험 기입근로자 국비 지원 혜택 180%~100% 환급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 소지자 혜택 (사용원도내 100%)

가족사랑 요양보호사교육원

062)364-1152-3

062)368-2070

ANYCHE CHAIR

기술과 인재를 바탕으로한 최지 전문 생산업체 - 유엔에나체

Anyche